제 115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일본현대미술사'와 기억의 정치학 : 반예술양광, 미공투, 오사카 만국박람회

(박 소현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다문화주의 열풍에 의해 일본국내에서도 서양 중심주의 미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본현대미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서구의 비평가들은 일본현대미술에 대해 서양이 회귀하고자 하는 날것을 미학을 간직했다 평가도 했지만, 일본국내에서는 '서양미술사'의 문맥 속에 존재하는 자국 현대미술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알렉산드라 먼로는 전후 일본전위미술에 대해 비 서양 국가의 근대화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극복 과"독자적 근대성"의 주장했고 '일본현대미술=서양모방'이라는 평가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전위미술사'로 '일본현대미술사'를 제시 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근대서양미술과 일본미술과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면서 미술을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nti-museology 의 시각에서는 미술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는 위험성 혹은 부정적인 측면을 비평적으로 대상화하려고 하지 않는 박물관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950~60년대를 거치며 일본작가들에 의한 전위미술의 다양한 시도와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미공투(美術家共闘會議)와 문화혁명을 통해 "현재의 미술가는 '예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대한 관리기구 전체와 대결해서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는 전위미술의 시각 역시 제시되었다. 이는 오사카 만국박람회(1970)가 체제에 의한 문화관리의 정점 만국박람회 분쇄' 운동으로 (1969)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공투에서 미공투 Revolution 위원회로 전위미술의 조류는 제도로서의 미술의 단념 & 국가권력에 대한 무력감과 현실 속에 그들의 정치성이 소통될 수 있는 문화혁명의 공간이 존재하는가를 고민했고, 또 다른 '전쟁터'로서의 미술사와 기억의 정치학으로서 반체제적 전위미술사를 통해 현대미술사의 창출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Q&A

1. 반체제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현대미술체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결국 현대미술사안에 포섭된 것은 아닐까? '기억의 정치학'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진행되었는가?
 - 반체제운동가들은 정해진 양식과 체제의 답습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미술계의 제도를 비판 한데 의의가 있고, 현대미술을 통해 구조화된 근대미술의 해체와 재구성을 실천할 수 있었다. 실상 전위와 그것을 부정하는 전위의 구분은 모호하며, 현대미술과 근대미술이 대립적인 양상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2. 동양(동아시아) 미술사 속의 일본현대미술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 서양의 미술사와 일본의 미술사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등장한 것은 예전부터가 아니다. 일본현대미술 자체가 서양미술사에 내외부적으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 지는 개인적으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한다. 실제 동양미술이라 함은 전통적인 것이라는 관념이 강하며, 동양미술내에서 일본현대미술을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당시 일본전위미술가들에게 아시아라는 개념이 그다지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본다.